

The Sonnets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

박 육 선*

Time and Space in *the Sonnets*

Abstract

Ok-Sun, P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treatment of time in the *sonnets* and also to deal with the effect of love upon the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e experience of temporality and spatiality.

Love and Time are significant themes in the *Sonnets* of Shakespeare, and space-as a correlative of time-is incidentally so. The primary theme is human subjection to time, and the secondary theme is human love, which offers the only mode of escape from devouring time.

The Poet realizes that time may destroy everything in the world, but a compassionate love triumphs over mutability and mortality, and continues to grow. Shakespeare's understanding about love's transcending time is not based upon Spenserian or Christian belief, but rather on personal experience. Time is considered as the object not to overcome but to modify, and it is believed that time can be transcended by only growing love.

The spatial imagery of some sonnets testifies to love's transcending power. Not only the physical dimension of space, that is, visual, auditory, and kinesthetic perception of space, but psychological distance does modify the experience of the lover, and so space can be transcended by love.

In conclusion, true love is free; it is characterized by a blessed independence of the contingencies of time and space.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영문학 전공)

I.

*The Sonnets*에 나타나 있는 사랑은 소넷의 주제로서 전통적으로 취급되어 전 사랑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현실적이다. 말하자면 정형화된 이상적인 연인을 노래하고 있지도 않거니와 사랑의 대상을 남성 시인이 노래하는 여인으로 한정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연인의 이상형을 미모의 청년에서 찾고 있고 이상적인 사랑도 남성에게서 구현하려고 하며 여성에게서는 에로스적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사랑을 주제로 하면서 이것과 매락시켜 시간에 대한 통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필멸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당연히 염원하게 되는 불멸을 얻는 방법으로서 사랑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한 시간속에서 사랑이 영원해질 수 있다는 확신은 소넷에서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단지 염원일 뿐이며 시인의 개인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간을 사랑이 극복해야 할 일차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우주 밖에서 삼라만상을 지배한다거나 시간을 신으로 동일시 한다거나 하는 전통적 시간관을 셰익스피어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그러나 시간의 파괴성에 대한 절망적인 확신은 대단히 짙게 나타나 있다.

셰익스피어는 시간과 함께 사랑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적으로서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공간이라고 할 때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소원감을 함께 공간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여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 청년을 사랑하는 시인의 꿈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시간이 냉은 짚음의 아름다움을 시간이 탐식하다는, 다시 말해서 창조와 파괴라는 시간의 모순된 양면성과, 시간이 스쳐가면서 잠시 머무는 물리적 공간과 결코 멈추는 법이 없는 심리적 유동 공간이라는 이원성을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관심사이다.

물론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한 파악이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지만 셰익스피어가 그의 소넷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했던 시간과 공간에 관한 고대와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의 전통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고대 중세 및 르네상스의 전통적인 시간관을 검토하고 그러한 전통을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발전시켰으며 그의 독특한 시간 개념이 어떻게 공간 개념과 연계되어 두 개념의 이원성을 어떤 변증으로 통합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II.

Harold E. Toliver¹⁾에 의하면 중세 기독교인에 있어서 인생은 시간과 존재의 발견인 동시에 그 근원으로의 회귀를 위한 여행이었다. 따라서 중세 시에 나타난 시간은 찰나적인 경험의 차원이 아니라 신의 섭리에 의한 연속체였으며 중세 시인들은 시간의 흐름을 다룰 때 보다 넓은 초월적 영원성이라는 맥락에서 무상을 깨달았다. 덧없는 이 세상은 영원과 섭리와 대자연이라는 궁극적 차원에서 설명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중세의 시간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풍요의 원리였으며 이 원리는 시간의 목적을 끊임 없는 생성으로 자손을 증식시키는데 있다고 보았다. Aquinas는 증식은 신의 뜻이며 신은 그 완전한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증식을 원한다고 했다.²⁾

풍요의 원리에 의하면 인간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손을 증식시킨다는 한 작은 역할을 함으로써 시간과 죽음에 의해서 감소되는 빈 공간을 채우게 되고, 젊음,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파멸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은 신의 섭리라는 보다 더 큰 차원에 흡수됨으로써 비로소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극복한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창조적 기능은 파괴적 기능보다 문학의 주제로서의 매력을 얻지 못했다. 엘리자베스와 자코빈 문학에서 반복된 주제는 역시 시간은 자손을 집어 삼키는 탐식가라는 시간의 파괴적 속성이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같은 순서로 되풀이되어 회전한다는 유전 사상과 파괴자 내지 탐식가라는 시간개념은 Ovid를 위시한 고전의 전통이었다.

Time, the devourer, and the jealous years

1) Harold E. Toliver, "Shakespeare and the Abyss of Time," *Th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64(1965), p.234

2) Thomas Aquinas, *The Summa Contra Gentiles I*, trans. English Dominican Fathers. 3 Vols(1923-29), Ixxv.

With long corruption ruin all the world
And waste all things in slow mortality.³⁾

셰익스피어 역시 소нет에서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Devouring time, blunt thou the lion's paws,
And make the earth devour her own sweet brood ;
Pluck the keen teeth from the fierce tiger's jaws,
And burn the long-lived phoenix in her blood ; (19:1-4)⁴⁾

시간 앞에서는 맹수도 불사조도 그 위력을 잃고 말며 또한 시간의 희생자는 애석하게도 짚음과 아름다움이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가꾸고 성장시켜 놓은 가장 값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이와같은 파괴적 기능과 역할은 이미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Father Time인 Cronus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잡아 먹어 치우는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⁵⁾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큰 낫과 모래시계를 가진 노인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시간은 자연의 생성 목적에 필요한 요소이다. 우의도(Emblem)에 나타나 있는대로 큰 낫을 가진 부정적인 시간의 모습은 단지 일부분을 보일 뿐이며 시간없이 생성의 순환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은 우주의 창조적 힘을 신의 섭리에 의해서 펼치는 절대 요소이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무상함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증식과 풍요의 자연법칙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자로서의 시간과 파괴자로서의 시간이라는 이원성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주제를 어떤 맥락에서 다를 것이며, 그러한 맥락이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시간의 파괴성을 거부하고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관상 변화하는 세속적인 속성보다는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여 시간을 초월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3) Ovid, *Metamorphoses*, translated by A.D.Melville(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359.)

4) *The Sonnets*의 인용은 소넷번호와 행수만으로 표시한다.

5) Erwin Panofsky, "Father Time," *Studies in Iconology*(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39), Chapter II.

다는 맥락을 취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적 주제와 상반되는 고전적 주제를 작품에 반영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Spenser는 Ovid나 Lucretius를 기독교화 시켰지만, Diniel은 기독교의 전통을 버리고 *carpe diem*을 추구하면서 만족했다. 따라서 *cape diem*이라든가 기회의 여신(occasion)으로 의인화되는 시간도 당시의 연극이나 시의 빈번한 주제였고 불멸의 예술을 통한 시간 극복은 Ovid의 주장이기도 했다.

Sidney Lee는 셰익스피어가 입은 Ovid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SHAKESPEARE LIBRARY
1945

Shakespeare's favourite classical poem, Ovid's *Metamorphoses*, which he and his generation knew well in Golding's English Version, is directly responsible for a more tangible tread of philosophical speculation which, after the manner of other contemporary poets. Shakespeare also wove dispersedly into the texture of his sonnets.⁶⁾

그러나 셰익스피어 소нет에 나타나는 시간은 경험을 통하여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하고도 역설적인 단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에 관한한 Spenser와 셰익스피어는 전자가 신의 우주 창조 목적이라는 차원에서의 해결이라면, 후자는 어디까지나 인간 개개인의 주관적이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토대로 한 인간 차원의 문제 해결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Ovid를 그대로 답습하지도 않았다. 셰익스피어는 젊음과 아름다움의 파멸을 전통적인 형이상학 구조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비록 소нет의 청년을 지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지만(sonnet 31) 셰익스피어에게는 젊음의 창조와 그 파괴는 형이상학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성적 심리적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нет에 나타난 시간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배경이 되어 있고 이 배경은 불길한 결정론적 성질의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생명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시인의 예술마저도 시간에 모두 빼앗긴다는 사실이다.

When I have seen by time's fell hand defaced

6) Sidney Lee, *A Life of William Shakespeare*(London : Smith, Elder & Co., 1898), p.180.

The rich proud cost of outworn buried age,
 When sometime lofty towers I see down razed,
 And brass eternal slave to mortal rage,
 When I have seen the hungry ocean gain
 Advantage on the kingdom of the shore,
 And the firm soil win of the watery main,
 Increasing store with loss with store,
 When I have seen such interchange of state,
 Or state itself confounded to decay,
 Ruin hath taught me thus to ruminant,
 That time will come and take my love away.(64 : 1-12)

“시간이 오면 나의 사랑은 빼앗기고 만다”는 슬픔은 시간과 대치하면서 혼자서 겪는 경험이며 바로 이러한 경험이 셰익스피어가 소нет에게 묘사하고자 한 소재인 것이다. Toliver는 현재에 산산조각으로 붕괴되고 과거로 사라져 가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It is a vital dimension of things : events tend to rush onward, toward certain characters, like landscape toward a speeding train, fragmenting in the present and receding in the past toward non-being.⁷⁾

청년을 중심으로 한 소нет에서 셰익스피어는 시간의 힘에 대한 저항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어떠한 것도 시간의 큰 낫에 대항할 수 없다”(12:13)는 깨달음을 전제로 한것이다. “황폐하고”(15:11) “잔인한 폭군”(16:20)이며 “도둑처럼 은밀하고”(77:8) “낫질로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60:12) 시간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이고 사악한 측면은 youth group 전반에 나타나 있고 시간이 창조한 젊음의 아름다움이 일시성 때문에 파괴된다는 역설을 개탄하고 있다.

Those hours that with gentle work did frame
 The lovely gaze where every eye doth dwell,

7) Harold E. Toliver, *op. cit.* p.234.

Will play the tyrants to the very same
 And that unfair which fairly doth excel ;
 For never-resting time leads summer on
 To hideous winter, and confounds him there (5:1-6)

젊음은 “시간의 가장 값진 보석”(65:10)이지만 동시에 가장 연약한 시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젊음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빠르게 파멸한다면 본래 시간에 주어진 생성의 의미는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는 아이러니를 절감하게 한다. 아름다움이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진 것이지만 시간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이 퇴색할 때 그것은 값진 것 만큼이나 역겨워진다. 따라서 시간은 근복적으로 기만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다.

So your sweet hue, which methinks still doth stand,
 Hath motion, and mine eye may be deceiv'd :
 For fear of which, hear this, thou age unbred :
 Ere you were born was beauty's summer dead.(104:11-14)

시간에 대한 도전으로 소нет의 시인이 제시하고 있는 세가지 방법은 자손증식과 예술과 지고의 가치를 가진 사랑이라는 점은 비평가들⁸⁾에 의해 주장되고 있지만 sequence전체에 나타나 있는 두개의 모순을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시인이 시간의 힘에 저항하는 이 세가지 방법 자체 내의 모순이며, 그 둘은 시간관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지적되는 모순이다. 시간의 흐름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고 개인적으로 이 충격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이 충격적 깨달음에서 도파하여 우주의 힘이라는 몰개성적 초월성에 의존하려는 시도 사이의 모순이다.

소넷의 도입부에서 시인은 “마흔번의 겨울”(2:1) 동안에 청년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손상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시인은 청년이 지금은 “the world's fresh ornament/And only herald to the haudy spring”(1:9-10)이지만 그 천부의 아름다움이 언젠가는 퇴색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그 때가 되

8) J. W. Lever, *The Elizabethan Love Sonnet*(London : Hutchinson, 1966), pp.189-235.

J. B. Leishman, *Themes and Variations in Shakespeare's Sonnets*(London : Hutchinson & Co., Ltd., 1961), pp.102-182

어 주름진 얼굴과 움푹 꺼진 눈을 한 노령의 겨울에 유일하게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유전된 자식의 미모라고 생각한다. 자식은 아름다운 4월과 현재의 황금기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시인은 청년에게 결혼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시인이 청년에게 결혼하도록 권유하는 이유는 첫째 청년 자신의 행복이고 둘째, 사회의 복리이다. 개인과 사회는 개인이 전체의 조직속에 통합될 때 비로소 사회나 개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이 통합은 자아에 대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결혼함으로써 청년의 빼어난 미와 재능은 유전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자신은 물론 후손과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을 시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손을 증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을 우주의 진행속에 흡수시킨다는 원리와 같다. 자신의 “아름다운 사월”(3:10)을 회상하기 위하여 자손을 증식시켜야 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개인적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청년이 자손을 통하여 항유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golden time”(3:12)은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의무(4,6)의 확신도 충분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sonnet 2에서 볼 수 있는 공허감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자손증식을 다른 소넷그룹(1-17)에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세와 르네상스 문학⁹⁾에 널리 퍼졌던 자손 증식의 방법을 시도했으나 이것을 곧 버리게 된다. 이를 소넷에서 극적 긴장감으로 나타나는 증식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태도는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인간의 개별적 경험에 자연의 패턴에 종속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감정문제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리하여 시인은 자신의 시에 의해서 청년에 대한 사랑을 영원화함으로써 시간 극복의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¹⁰⁾

시인이 청년의 미를 자신의 시에 새로이 “접목”(15:14)시키겠다는 시도는 그러한 시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16에서는 시인의 “빈약한 노래보다 더 축복받은 방법(16:4)”이라고

9) Cf. John Donne, *Sermons*. VII.

10) J. B. Leishman, *op. cit.*, pp.27-91.

하지만 17에서는 청년의 불멸의 미를 위해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But were some child of yours alive that time,
You should live twice in it and in my rhyme.(17:13-4)

그리나 18, 19에서는 예술이 자손 증식에 우선하고 있다.

Yet do thy worst, old time ; despite thy wrong
My love shall in my verse ever live young.(19:13-4).

또한 60에서 강력하게 부각되는 것은 모든 창조물의 죽음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시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Ovid의 시간이 절게 깔려 있지만 셰익스피어에게는 그것은 결국 저항할 수 없는 시간의 힘을 직면할 수 없다는데 대한 보상일 따름이다. 물론 자손 증식보다 시의 힘이 시간에 저항하는 힘으로서 더 강하지만 셰익스피어의 관심사는 시간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일 것이다.

시인은 청년의 미를 영속시키고 아름다운 우정과 자신의 이상을 영원히 자신의 시에 투영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청년에게 결혼을 권하고 있지만 사실은 청년의 존재는 자식을 원하지 않는 시인의 이상적인 자아일지도 모른다고 Sister Hoover는 지적하고 있다.

The Poet has several motives for urging the young man to marry...
But the Poet's primary motive in urging the young man marry pertains to the Poet and his art. The Poet desires the perpetuation of beauty, loving friendship, and the eternal projection of his own ideal. While ostensibly advising a young man (who is possibly the poet's ideal self, not desiring progeny), the Poet reflects the path of his own maturation to an evolving and creative wisdom.¹¹⁾

따라서 그가 청년에게서 발견한 인간창조와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을 시로서 어느정도 표현할 수 있다면, 시간은 극복하는것이 아니라 변형시켜야

11) Sister Mery Frederick Hoover, s.v.d., *A Study of Imagery in Shakespeare's Sonnets, Troilus and Cressida, Macbeth, Antony and Cleopatra, and the Winter's Tale*(Ann Arbor, Michigan :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73), p.10.

한다는 새롭고 진정한 의미가 주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18의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상의 사랑을 초월적 영원과 관련시킨 Chaucer나 Spenser의 관조가 아니다. 셰익스피어가 발견한 것은 예술도 사랑처럼 귀한 것 이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연약한 가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And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 declines,
By chance, or nature's changing course untrim'd :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Nor lose possession of that fair thou ow'st,
Nor shall death brag thou wand'rest in his shade,
When in eternal lines to time thou grow'st
So long as men can breathe or eyes can see,
So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18:7-14)

그래서 “황동도 암석도 시간의 힘을 당하지 못하는데 꽃송이 하나 보다 더 강할 것 없는 미가 이 폭력에 대항해서 무슨 항변을 하겠느냐”(65:1-4) 고 시간의 파괴적 힘을 강조하면서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력한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이미지로 꽃을 제시한 것이다. 꽃의 이미지가 내는 효과는 가장 섬세한 질서를 부여받은 미의 모범이 되는 피조물인 동시에 가장 망가지기 쉽다는데 있다. “거대하고 확고한 석조물의 질서가 파괴되어 소멸할진대”(64:2) 하물며 가장 연약한 질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Frederick Turner도 이 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The image that occurs again and again, as if its associations were so
heartbreaking and inexhaustible that Shakespeare could not let it go, is
the image of the dying flower.¹²⁾

Dover Wilson이 Ovidian series¹³⁾라고 말한 소넷(62-68) 가운데서 시간의 탐식성을 주제로 한 64에서는 응장함의 폐허를 묘사하고 있고 65에서는 아

12) Frederick Turner,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Time*(Oxford : Clarendon Press, 1971), p.10.

13) Dover Wilson, ed., *The Sonnet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cxvi.

틈다움의 퇴색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Ovid의 *Expondo*¹⁴⁾에 “강철도 돌도
집어 삼키는 시간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시 만
이 가는 세월을 이길 수 있을 뿐”이라고 한 것이라든가 Horace의 *Ode 30*
(Book III)에도 “나는 청동보다 더 영원한 기념비를 완성했다”고 시의 영원
성을 언급한 고전을 세익스피어가 의식하면서 시드는 꽃의 이미지를 사용
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시드는 꽃의 비애는 시간의 법칙에 복종하
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에서 가치와 목적을 보았다는 데 있으며, 미와 사
랑의 비극은 유동에 의해 지배되는 시간의 세계속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O none, unless thos miracle have might
That in black ink my love may still shine bright (65:13-4)

청년을 위하여 시간에 맞서는 세번째 방법은 사랑의 힘이다. 시인은 사
랑만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

Yet him for this may love no whit disdaineth ;
Suns of the world may stain when heav'n's sun staineth. (33:13-4)

그러나 그것은 철학적 논리의 전개가 아닌 상상의 과장된 표현이다. 심
오한 경험의 묘사는 오로지 가장 고조된 말 만이 충분한 것처럼 여겨지지
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때로는 불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의 아름다움
은 신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영원한 여름”(18:9)은 아니다. 사랑과 아름
다움은 변하는 세계의 일부라는 경험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인간이 경
험하는 사랑은 불가항력적으로 무상한 것이다. 시인은 과거의 경험과 이상
이 뒷없이 지나가버린 것을 한탄한다.

When to the sessions of sweet silent thought
I summon up remembrance of things past,
I sigh the lack of many a thing I sought
And with old woes new wail my dear time's waste. (30:1-4)

그러나 그는 사랑을 통하여 그의 생활에 새롭고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14) Ovid, *Metamorphoses* Book X V.

되고 그도 역시 “기꺼이 맞이할 죽음의 그날”(32:1)에 이르게 됨으로써 과거의 의미를 깨닫는다.

결국 시간의 파괴력과 시간의 공범인 변화에 좌절되지 않는 것은 사랑의 변형의 힘이다. 시간은 “신성한 미를 추하게 하고 날카로운 결의를 둔하게 하고 강한 마음을 세파에 따라 변하게 하는 것”(115:7-8)이지만 사랑은 세월의 무상을 싸워 이기고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시인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은 성장하는 아기에 비유되고 있다.

Love is a babe ; then might I not say so,
To give full growth to that which still doth grow.(115:13-4)

청년의 아름다움이 후계를 잊거나 시인의 시 속에 구현됨으로써 영원해질 수 있다는 믿음은 결국 시간과 더불어 성장하는 사랑은 영원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성장하는 사랑에 있어서 시간은 결코 타협불능의 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랑은 시간과 더불어 커가면서 시간을 이겨낸다.

그러나 이 성장하는 사랑마저도 적이 있다. 그것은 공간이다.

If the dul substance of my flesh were thought,
Injurious distance should not stop my way ;
For then, despite of space, I would be brought,
From limits far remote, where thou dost stay.
No matter then although my foot did stand
Upon the farthest earth removes from thee ; (44:1-6)

만약 시인의 “육체의 둔한 물질이 상념과 같이 가볍다면”공간은 시인과 청년의 사이를 떼어 놓을 수 없고 물리적 차원의 공간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방해물은 되지 않는다.

So either by thy picture or my love,
Thyself away are present still with me ;
For thou no farther than my thoughts canst move,
And I am still with them, and they with thee ; (47:9-12)

그것은 “친구의 모습이 눈을 기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동”(47:13-4)

시키기 때문에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되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청년과 헤어져 있음으로 해서 시인은 불만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청년을 생각하면 음을 한 대지에서 천국의 문으로 날아오르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Haply I think on thee, and then my state,
 Like to the lark at break of day arising
 From sullen earth, sings hymns at heaven's gate ;
 For thy sweet love rememb'red such wealth brings,
 That I scorn to change my state with kings.(19:10-4)

사랑의 활활경은 천국에 비유되고 있다. 천국은 축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세를 초월한다는 공간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의 기쁨은 아무런 막힘도 없이 미끄러지듯 하는 종달새의 노래소리로 비유되고 있는데, 종달새는 새벽과 더불어 적막한 대지 저 멀리 날아 올라 천국의 문에서 더 높고 더 밝게 노래한다. 새의 음악이 나오는 공간은 우울한 생각으로 지새운 밤이 지난 새벽이며 그 노래의 음량은 대지를 비치는 햇빛만큼 증대되고 그 음속은 천국의 문까지 단숨에 날아오를 만큼 빠르다. 새의 노래소리는 역동적으로 흐르는데서 시간성을 타나내고 있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과 관련해서 공간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물리적 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직접적인 적이 있다. 그것은 심리적인 거리다. 아름다움과 우정을 영속시키고, 친구를 사랑하는 자신의 입장을 지속시키며, 친구의 아름다움과 재능의 천부적 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시인의 목적은 경쟁시인이 개입하고 시인의 애인인 혹부인과 청년이 내통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친구의 고결함이 경쟁시인의 시와 타협해서 손상될 때 시인의 창조적 힘이 방해받고 되고 시인과 친구와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냉담해지게 된다.

But when your countenance filled up his line,
 Then lacked I matter, that enfeebled mine.(86:13-4)

시인은 노여움 때문에 친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사랑을 호소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시간을 “unknown minds”(117:5)와 보내게 된다. 그러나 경쟁시인의 개입과, 청년이 시인의 애인과 내통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청년과의 “thou”¹⁵⁾ 관계를 지속하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

청년이 시인의 이상적인 자아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이와 정반대로 혹부인은 은밀하고 사악한 길로 인도하는 도착된 시인의 자아이다. 그녀가 연인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극적인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127과 130에서 묘사되어 있는 그녀의 모습은 악의 적이고 회화적인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 미적인 면으로나 도덕적인 점에서 나 한계에 이른 혹부인에서 시인은 완벽하지 못한 것에 자신을 안주시키는 어떤 대상을 발견한다. 시인과 혹부인은 서로 속인다. 이들의 관계에 대한 Spender의 설명은 음미할 만하다.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lationship of the friends with one another, and the poet with the mistress, is of identification between the friends and of otherness with the mistress. The poet and friend are one, the mistress is “other”¹⁶⁾

타산적인 위선으로 특징되는 객관적 “It”的 시각은 연인 각자가 상대방의 타락과 결점을 알고 있을 때 성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유일한 구실이요 근거가 된다. “Thou”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It”관계는 피상적으로만 유지된다. 결국 It 관계는 시인으로 하여금 항상 불안에 떨게 하고 광증으로 몰아 넣는다.(147:10)

시인은 마침내 그 자신의 열정은 물론이고 애인과 그 자신마저도 혐오하기에 이른다. 그는 혹부인의 구애에 굴복했다고 청년을 심하게 비난하거나 훈계하기를 삼간다. 오히려 시인은 청년의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장엄한 자연현상에 빗대어 응호하고 있다. 시인은 물론 그의 이러한 태도가 도덕적 자각을 유기(遺棄)하고 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모르

15) Tucker Brooke, *Shakespeare's Sonnets* edi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36), pp.29-31.

dark lady group에서 혹부인은 언제나 “thou”로 칭하고 있는 반면에 youth group에서는 thou와 you를 번갈아 쓰고 있는데 소넷에 따라 친근감을 나타낼 때는 thou, 존경을 나타낼 때는 you를 쓰고 있다. 그러나 동일 소нет에서 혼용하지는 않는다. thou소넷은 73편, you소넷은 37편으로 나타나 있다.

16) Stephen Spender, “The Alike and the Other” in Edward Hubler ed., *The Riddle of Shakespeare's Sonnets*(New York : Octagon Books, 1982), p.§

고 있지는 않다.

All men make faults, and even I in this.
 Authorizing thy trespass with compare,
 Myself corrupting salving thy amiss,(35:5-7)

혹부인에 대한 비난이 도덕성에 입각하고 있는데 반해서 모든 과오를 눈물로 속죄하는 청년을 용서하는 것은 상호간의 불쾌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죄를 범하는 시인은 “마녀의 눈물을 마셨고”(119) 청년의 사랑을 간청하기를 잊게 된다.(117)

시간이 경과하고 자아인식을 터득함으로써 시인은 청년과의 우정을 한결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O benefit of ill, now I find true
 That better is by evil still made better ;
 And ruined love when it is built anew
 Grows fairer than at first, more strong, far greater.
 So I return rebuked to my content,
 And gain by ills thrice more than I have spent.(119:9-14)

시인은 자신에게 있어서 “all the world”(112:4)인 청년과 영원한 맹세를 하게 된다. 육욕의 경험이 친구를 타락시키기 쉽지만 인간정신이 시간과 공간의 육감적 세계를 초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는 시인의 경험을 바꾸어 놓는다. 그를 태운 말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청년과의 거리를 멀리할 때 물리적 거리는 시인에게 고통을 준다.

The beast that me, tires with my woe,
 Plods dully on, to bear that weight in me,
 As if by some instinct the wretch did know
 His rider loved not speed, being made from thee,
 The bloody spur cannot provoke him on.
 That sometimes anger thrusts into his hide ;
 Which heavily he answers with a groan,

.....

More sharp to me than spurring to his side ;
 For that same groan doth put this in my mind
 My grief lies onward and my joy behind.(50:1-7, 12-14)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공간이 아니라 말의 근육운동과 신음 소리가 청년과 헤어져 있는 공간의 감정을 더 강렬하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The physical dimension of space attains significance in this sonnet because the experience of distance is participative, not external, as is the visual perception of space. Space perceived visually is outside and beyond the observer. The auditory and kinesthetic perception of space affects the feelings more than the visual perception. The plodding and groaning of the horse expresses the Poet's sadness at the realization that behind him lies joy and ahead the way of grief¹⁷⁾

미래의 슬픔이요 과거의 기쁨이라는 시간과, 앞의 비애와 뒤의 즐거움이라는 방향의 공간을 역동적인 운동과 소리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구사하여 사랑의 기본개념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사랑의 세계가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에도 연인의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인의 죽음과 사랑의 종말을 주제로 한 73과 97의 공간에는 새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시인 자신의 노쇠한 모습을 겨울과 황혼이라는 어느 한 계절과 하루의 어느 한 시간의 공간을 “새의 울음소리 들리지 않는 텅 빈 성가대 자리”(73:4)와 “죽음의 분신인 어둠깔린 밤”(*Ibid.*:7-8)으로 묘사하고 있는 73에서 주목할 것은 각 quatrain마다 “본다”는 동사 즉 1행의 behold, 5행과 9행의 see'st, 13행의 perceiv'st가 의미하는 회화적 요소이다. 청각적 요소도 근육의 역동적 요소도 없는, 그래서 정적만이 감도는 시각적 요소는 “추위에 떨고 있는 헐벗은 나무가지”(*Ibid.*:3)와 “텅 빈 성가대 자리”에 대해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다의성 내지 비논

17) Sister Hoover, *op. cit.*, pp.12-3.

리성¹⁸⁾에도 불구하고 나무가지에서 새 울음소리로, 새의 소리에서 합창하는 소년들로, 그 소년들과 같은 짚음을 상실해버린 시인 자신의 황혼이라는 이미저리의 전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계와 인간계의 몇겹으로 이어진 이미지의 융합을 거쳐 죽음의 결정적인 순간인 “짚음이 재로 남은 죽음의 침상”(*Ibid.*:10-11)이라는 공간개념으로 전환하기까지 회화적 이미지는 물 흐르듯 유동적이다. 세익스피어의 이와같은 이미저리의 구사법과 그 비 논리성을 Frederick Turner는 다음과 같이 옹호하고 있다.

Shakespeare thinks in symbols and in emotional and moral intuitions. He tests an idea not by its internal logical coherence but rather by its appeal to his imagination, his heart, and his moral sense ; and by its applicability in a real situation or a concrete images.¹⁹⁾

97, 98은 같은 이별을 주제로 한 소넷이라도 20번대에서 40번대에 이르는 소넷들에서 볼 수 있는 일시적 이별이 아니라 사랑의 종말을 그리고 있다. 특히 97은 계절에 따른 사랑의 형태가 비교되고 있는데 봄과 여름은 사랑이 무르익을 때이며, 가을은 사랑의 결실, 겨울은 사랑의 종말로 묘사되고 있지만 시인이 서 있는 공간은 여름에 연인과 헤어져 그 동안을 겨울처럼 보낸,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겨울을 눈앞에 둔 가을이지만 시인은 그 공간을 과거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같은 서술 시제와 계절의 다양성 내지는 혼란까지에 이르는 비논리는 시인의 굴절된 심리로서 의관과 심리적 실제의 양면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한 서술하는 시간과 계절이 갖는 회화적 이미지를 가진 공간의 완전한 융합으로 본다면 사랑의 종말인 “새가 울지 않는”(97:12) “늙은 12월의 불모”(*Ibid.*:4)는 바로 시인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98역시 계절과 사랑은 종말의 비관론으로 대비되고 있다. “우울한 토성 까지도 웃으며 춤을 추는”(98:4)봄이지만 연인과 헤어진 시인에게는 “새의 노래 소리도 꽃 향기도 여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는”(*Ibid.*5-7)겨울과 같다. 청각적이고 윤동적인 봄의 정경이 아름다운 색과 향기와 함께 공간을

18) Cf. William Empson, *Seven Types of Ambiguity*(Penguin Books, 1961), pp.2-3.

19) Frederick Turner, *op. cit.*, p.7.

가득 채우고 있지만 연인과 헤어진 공간은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이다.

What is your substance, whereof are you made,
That millions of strange shadows on you tend?
Since everyone hath, every one, one shade,
And you, but one, can every shadow lend.
.....

Speak of the spring and foison of the year ;
The one doth shadow of your beauty show,
The other as your bounty doth appear,
And you in every blessed shape we know.

In all external grace you have some part,
But you like none, none you, for constant heart.(53:1-4, 9-12)

우울한 시인에게 있어서 봄의 공간이 연인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플라톤 주의는 세익스피어에게 단순한 전통은 아니다. “알지 못 할 수많은 그림자”를 청년이 발산하는 아름다운 반사광으로 본다면 청년은 시인에게 유일한 플라톤적 이상형이라는 점은 Booth도 인정하고 있다. Booth는 청년의 실체(substance)와 그림자(shadows)를 “이 두개의 플라톤적 용어는 플라톤의 이데아 원리를 설정하여 그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세익스피어가 확장시킨 것”²⁰⁾이라고 말하고 있고 Leishman도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가 인간과 자연을 초월하고, 기독교적 Platonism에서는 신이 이 양자를 초월하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Petrarch, Chaucer, Ronsard 등의 작품과 세익스피어의 작품은 염연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But although these poets declare that the beauty of the person celebrated is unique never-to-be-repeated manifestation of what God and Nature can achieve, none of them, and so far as I know, none of their imitator, ever went so far as to declare, like Shakespeare, that the beau-

20) Stephen Booth, ed, *Shakespeare's Sonnets*(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1977), p.224.

ty of the person celebrated was the substance of which no other beauties were but shadows.²¹⁾

따라서 이별의 슬픔은 Petrarch에도 Ronsard에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변증법적 응합은 셰익스피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증은 “사랑은 시간의 어릿광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한 “북극성”的 공간으로 끌어 옮겨 진실한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인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116에서 완성된다.

LET ME NOT TO THE MARRIAGE OF TRUE MINDS
ADMIT IMPEDIMENTS. LOVE IS NOT LOVE
WHICH ALTERS WHEN IT ALTERATION FINDS,
OR BENDS WITH THE REMOVER TO REMOVE.
O NO, IT IS AN EVER-FIXED MARK
THAT LOOKS ON TEMPESTS AND IS NEVER SHAKEN ;
IT IS THE STAR TO EVERY WAND'RING BARK,
WHOSE WORTH'S UNKNOWN, ALTHOUGH HIS HEIGHT BE TAKEN.
LOVE'S NOT TIME'S FOOL, THOUGH ROSY LIPS AND CHEEKS
WITHIN HIS BENDING SICKLE'S COMPASS COME.
LOVE ALTERS NOT WITH HIS BRIEF HOURS AND WEEKS,
BUT BEARS IT OUT EV'N TO THE EDGE OF DOOM.
IF THIS BE ERROR AND UPON ME PROVED,
I NEVER WRIT, NOR NO MAN EVER LOVED. (116)

이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의 작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소нет의 전후 문맥에서 볼 때 시간보다는 오히려 “등대”, “별”, “표류하는 작은 배”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의 벼랑끝” 등의 공간적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미지들이 결합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종국적 이미저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지표”이며 사랑의 영원성은 결국 이 공간 이미저리에 의해

21) J. B. Leishman, *op. cit.*, p.171.

그 정의를 얻게 된다. 사랑이라는 별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인간에게 표류를 막아주는 지표가 되지만 그 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표류는 기정사실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별을 사랑에 비유한 것은 오류가 될 수도 있겠으나²²⁾ 바다와 별의 공간개념에 의한 사랑의 정의는 이 소넷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116은 사랑은 텁식하는 시간마저도 지배할 수 있다는 상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일은 그 자체가 영원성을 의미하자는 않기 때문이다. Murray Krieg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Here Shakespear's Christianity makes some trouble for his Platonism.
Line 12, "But bears it out even to the edge of doom," inconsistently imposes a limitation of time upon love--however generous--that would after all keep love as time's child, though its most long-lived one. The Christian break between time and timelessness, marked by the last judgement, intrudes upon the eternal perfection of love to make it less than infinite. Shakespeare's metaphorical dedication to love's totally sovereign timelessness should force it to elude the domain of Christian time and timelessness. And "doom" can of course have no other meaning than doomsday.²³⁾

청년의 아름다움도 예술도 사랑도 변하는 세계의 일부로서만 그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노쇠와 죽음도 이와같은 매락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함을 사랑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관조하는 사랑은 비로소 “영원히 변치 않는 지표”가 되는 것이며, 변화와 결별과 소외와 경쟁이라는 외적 요소는 단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If my dear love were but the child of state,

22) Yvor Winters, *Forms of Discovery*(Chicago : The Swallow Press, Inc., 1967), p.55.

23) Murray Krieger, *A Window to Criticism : Shakespeare's Sonnets and Modern Poetics*(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144.

It might for Fortune's bastard by unfather'd,
As subject to Time's love or Time's hate.(124:1-3)

곁으로 나타난 사랑은 “시간의 어릿광대”(124:113)일 뿐이다. Quinones는 116과 124에서 볼 수 있는 하나로 통합된 셰익스피어의 신념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Sonnet 116 proclaims that love is not Time's fool, and Sonnet 124 maintains the independence of love from the accidents of Time, Nature, and Fortune. If there is one Shakespearean belief, this would be it : his faith in a capacity of the human spirit to resist the bodily processes of age and decay through a renewing love of the mind²⁴⁾

셰익스피어의 사랑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연약하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속에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시간은 책임의 영역이 되고 순간 순간은 이용의 기회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은 결코 정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끊임없는 도전이요 탐식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성장을 위한 창조적 매체로 받아들임으로써 사랑은 시간의 어릿광대가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인생에 내적 의미를 주며, 진실한 사랑은 “기교 모르며, 오로지 그대만을 위해서라는 상호간의 희생만이 있는”(125:11-2) 사랑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인간경험이 성장할 수 있는 생존의 유일한 영역으로 기꺼이 인정함으로써 시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세의 종교 시인들이 주장하는 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서 완전히 탈피한 시간의 극복이다. 셰익스피어의 신앙은 사랑의 경험을 영원한 것으로 믿는 연인들의 용기를 파괴하기에는 시간은 부적절하며 무능력하다는 것이다. 123에서 시인은 시간의 파괴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깨달음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사랑의 궁극적인 가치를 이런 식으로 확신하기 위하여 시인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시간과 변화를 거역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록 J.

24) Ricardo Joseph Quinones, "Time in Dante and Shakespeare", *Symposium* 22, No 1 (Fall, 1968), p.273.

W. Lever²⁵⁾는 부인하고 있지만 126은 시간에 대한 전체 sequence의 클라이맥스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주제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뿐만 아니라 풍요와 아름다움의 힘까지도 시간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과 청년을 모든 자연의 본질적 아름다움의 축도로 묘사하면서 “자연의 기쁨의 총아”로 극찬하고 있지만 자연의 진행 속에서 시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If Nature(sovvereign mistress over wrack).

As thou goest onwards, still will pluck thee back,
 She keeps thee to this purpose, that her skill
 May time disgrace, and wretched minutes kill,
 Yet fear her, O thou minion of her pleasure !
 She may detain, but not still keep, her treasure ; (126:5-10)

자연은 “자신의 보배를 한 때 지닐지 모르나 영원히 간직하지는 못하며” 비록 아름다움의 희색이 유창한 멜로디로 기록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청년의 아름다움도 결국은 시간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현실적 깨달음으로 끝난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시간에게 의미를 주지만 인간은 시간과 타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까지도 시간에 예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Her audit, though delay'd, answer'd must be,
 Ane her quietus is to render thee.(126:11-2)

이와 같이 셰익스피어는 그의 소нет에서 창조와 파괴라는 이원개념에 입각해 있는 전통적인 시간관을 답습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복합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그 시간은 파괴적 인면이 부각되어 있다. 이 시간은 사랑의 적으로 나타나 있고 청년의 아름다움과 사랑은 변하는 세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 사랑은 시간과 함께 성장한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이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시간에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시간과 더불어 성장하면서 그 영원성을 얻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25) J. W. Lever, *op. cit.*, p.269.

한 것이다. 공간도 사랑의 적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물리적 거리는 청년의 모습에 대한 기억과 과거의 사랑에 대한 추억이 이별의 고통을 이기게 하며 심리적인 거리도 마찬가지다.

III.

결론적으로, 셰익스피어는 전통적으로 소нет의 주제가 되어온 사랑을 덧없는 시간속에서 영원성을 얻기위한 한 방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무상한 시간, 파괴적인 시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과 심리적인 거리감마저도 사랑이 극복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먼저 시간 극복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자손증식이라는 방편이 제시되기도 하고 연인을 노래한 시의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시간은 Ovid나 Spenser보다 멀 단순하다.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시간의 파괴적 속성과 예술에 의한 시간 극복은 셰익스피어와 같은 맥락의 것이지만 Spenser가 신의 창조 목적에 입각해서 파괴적 시간을 이해한 반면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경험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에 있어서 시간에 의해 파괴되는 것은 생명 만이 아니라 사랑의 아름다움과 예술도 시간에 의해 빼앗긴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간에의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태도는 회의적이고 애매하게 나타나 있다. Spenser와 같이 확고한 기독교적 입장도 아니고 개인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닌 양립적 자세로 머뭇거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시간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다는 변형시켜야 한다는 그의 입장의 한 단면으로 이해된다. 예술과 사랑이 영원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흐르는 시간속에서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파괴력과 변형능력에 대처하는 것은 사랑 자체의 변형과 성장이 되는 것이다.

공간 역시 사랑이 극복해야 할 적이지만 사랑이 “상념처럼 가볍다면” 연인이 헤어져 있는 거리는 능히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이며 연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심리적 거리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해서 소멸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플라톤적 이데아 원리에 적용되어 있다. 이것 역시 경험론에 입각해서 전개되어 있다.

중세 기독교 시인들이 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통해 시간극복을 꾀한 것과는 달리 셰익스피어는 시간을 인간경험이 성장할 수 있는 생존의 유일한 영역으로 인정함으로써 시간에 도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연의 진행 속에서 시간과 변화를 극복할 수 없음도 함께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시간을 극복하고 시간과 더불어 성장하는 사랑을 통해서, 또한 연인에 대한 기억과 사랑의 추억에 의해 사랑에 장애가 되는 공간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